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08년 9월 산업생산 둔화세, 소비위축 심화
- 2008년 9월 광공업 생산은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6.1%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 0.6% 감소하여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전월대비 0.2% 증가로 나타나 지난달 1.2% 감소(전월대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당분간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제 위축을 감안할 때 경기 하강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생산은 컴퓨터(20.0%), 기타 운송장비(4.0%), 반도체 및 부품(1.2%)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한 반면, 자동차(-11.2%), 섬유제품(-3.8%), 식료품(-0.5%) 등을 중심으로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서비스업(5.1%),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4.0%), 통신업(2.9%), 금융 및 보험업(2.6%)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4.1%), 운수업(-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0.8%) 부문에는 감소함.
- 2008년 9월 소비의 부진은 심화된 반면, 투자는 소폭 확대됨.
 - 소비재 판매는 의복·직물 등 준내구재와 승용차 등 내구재의 큰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각각 3.8%, 2.0% 감소함. 이는 유류가격의 인상과 불안한 경기전망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특히 내구재의 판매가 상당히 감소함.

－ 설비투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기계류와 운수장비 투자가 늘어나 전년동월대비 7.3% 증가세가 확대됨.

○ 현재의 경기 사정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1로 전월보다 0.3p 하락하였으며, 향후의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선행지수가 전년동월대비 8개월째 동반 하락세를 보임.

◆ 2008년 10월 소비자물가 한층 완만해진 상승세(전년동월대비 4.8% 상승)

○ 2008년 10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제품 가격 둔화폭이 커지면서 전년동월대비 4.8% 상승에 그쳐 3개월 연속 둔화세가 지속됨.
－ 2008년 10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6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9월	3/4	4/4	연간	1/4	2/4	3/4p	8월p	9월p
생산	산업생산	12.8	11.5	11.3	5.2	10.1	4.0	7.0	-3.1	5.9	11.0	6.8	10.6	8.6	5.6	1.9	6.1(-0.6)
	제조업 생산	13.4	12.1	11.8	5.6	10.5	4.1	7.1	-3.3	6.2	11.2	7.0	10.7	9.0	5.6	1.9	6.0(-0.2)
	출하	9.7	9.0	9.2	3.8	7.8	5.1	7.2	-3.7	5.4	10.6	7.1	8.9	6.3	5.4	1.9	5.9(-1.4)
	수출	13.1	14.2	15.7	5.6	11.9	6.7	9.9	1.9	9.1	16.2	10.2	14.3	13.5	10.5	6.5	12.4(5.0)
	내수	7.1	4.9	3.8	2.2	4.5	4.1	4.9	-7.2	3.0	6.8	4.9	5.3	1.7	1.7	-1.4	1.2(0.1)
	서비스업 생산	6.2	5.4	4.5	4.8	5.2	5.4	6.4	4.3	7.2	6.8	6.4	6.4	4.6	2.7	1.5	3.0(0.2)
소비	소비재 판매	5.3	6.1	2.9	4.5	4.7	5.7	5.2	6.4	7.1	4.5	5.3	3.9	2.5	1.0	1.4	-2.0(-3.8)
투자	설비투자	6.2	6.7	11.8	5.1	7.4	12.8	12.1	-3.7	0.7	9.2	8.6	-0.9	0.1	6.2	1.5	7.3(-2.7)
물가		2.0	2.3	2.5	2.2	2.2	2.1	2.4	3.0	2.3	3.3	2.5	3.8	4.8	5.5	5.1	4.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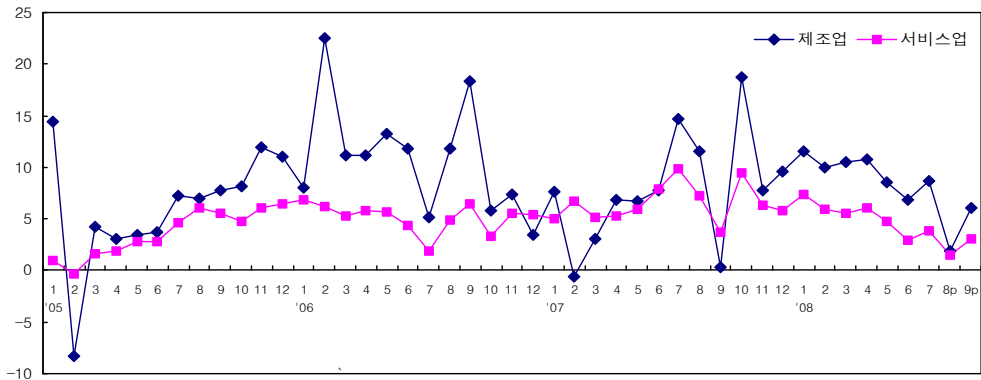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 (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 3) 물가는 9월, 10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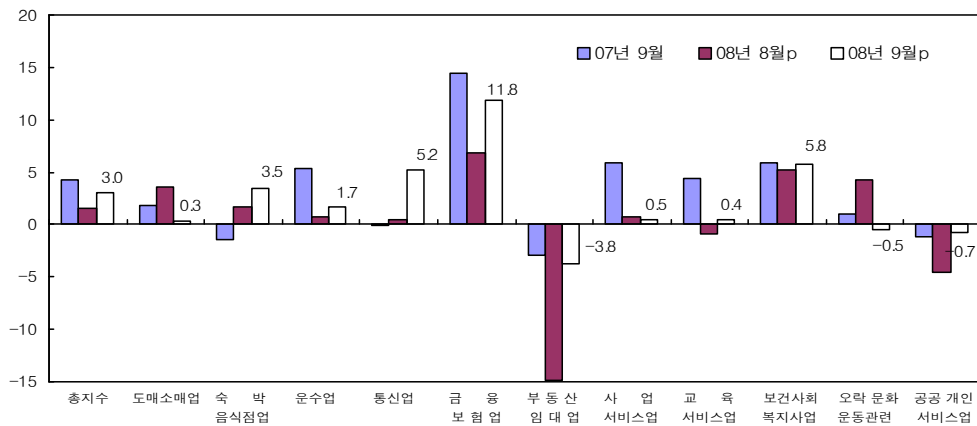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 『2008년 9월 산업활동동향』, 2008. 10.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경활참가율과 실업률 감소

- 2008년 3/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4,503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7천 명(0.6%)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298천 명으로 93천 명(0.7%)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205천 명으로 44천 명(0.4%) 증가함.

- 2008년 3/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3.9%)이 전년동기대비 0.4%p, 여성(50.3%)이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함(그림 3 참조).
- 2008년 3/4분기 중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71.3%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9.0%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하였음.
- 2008년 3/4분기 중 취업자는 23,75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1천 명(0.6%)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80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2천 명(0.7%), 여성 취업자는 9,951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9천 명(0.5%)이 증가함(그림 4 참조).
- 2008년 3/4분기 중 실업자는 75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천 명(-0.6%)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1%로 전년동기와 같음.
 - 남성 실업자는 49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천 명(0.2%)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5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천 명(-2.3%) 감소함.
 - 실업률은 남성이 3.5%로 전년동기와 같은 반면, 여성은 2.5%로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함.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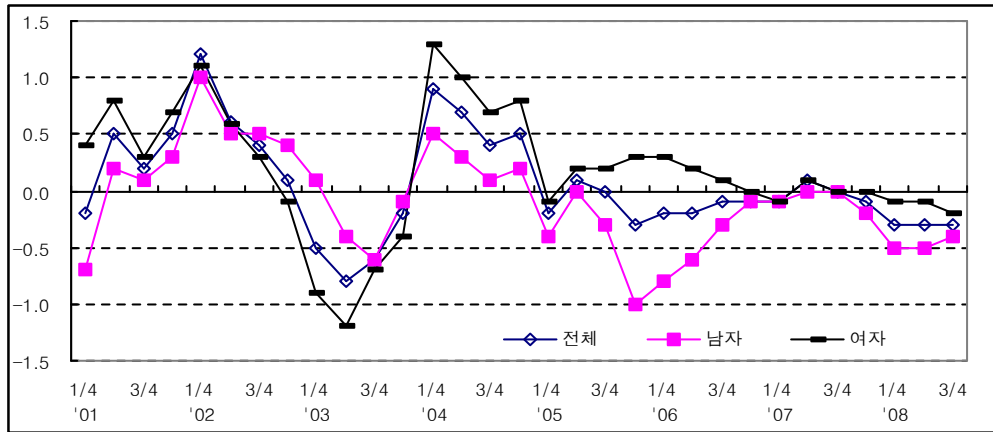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경제활동인구	23,692 (0.9)	24,489 (1.1)	24,367 (1.1)	24,341 (1.0)	24,316 (1.0)	23,852 (0.7)	24,638 (0.6)	24,503 (0.6)	24,380 (0.7)	24,456 (0.5)
참가율	60.8	62.6	62.1	62.0	61.8	60.5	62.3	61.8	61.5	61.6
취업자	22,841 (1.2)	23,698 (1.2)	23,610 (1.3)	23,622 (1.3)	23,582 (1.2)	23,051 (0.9)	23,871 (0.7)	23,752 (0.6)	23,617 (0.7)	23,734 (0.5)
고용률	58.6	60.6	60.2	60.2	60.0	58.5	60.4	59.9	59.6	59.8
실업자	851	791	756	719	734	801	767	752	764	722
실업률	3.6	3.2	3.1	3.0	3.0	3.4	3.1	3.1	3.1	3.0
비경제활동인구	15,305 (1.4)	14,647 (1.0)	14,865 (1.0)	14,918 (1.1)	15,000 (1.3)	15,575 (1.8)	14,903 (1.7)	15,154 (1.9)	15,277 (1.7)	15,236 (2.1)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 『2008년 9월 고용동향』, 2008. 10.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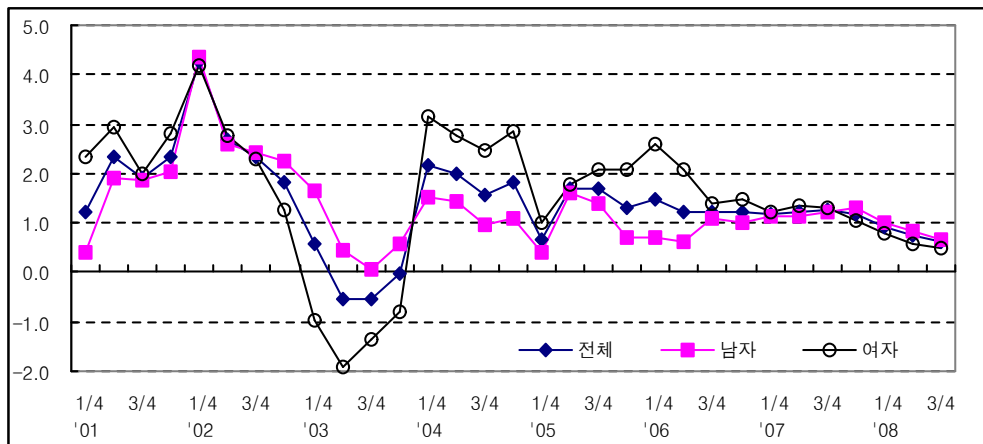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2008년 3/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15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89천 명(1.9%)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05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5천 명(2.9%)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09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4천 명(1.4%)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하는 '통학'은 4,247천 명으로 125천 명(3.0%), 비통학 취업준비는 379천 명으로 55천 명(16.8%) 증가한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31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7천 명(-2.0%) 감소함.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 2008년 3/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02천 명, 3.9%)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51천 명, -0.9%), 농림어업(-34천 명, -1.8%), 제조업(-39천 명, -0.9%), 건설업(-33천 명, -1.8%), 전기·운수·통신·금융업(-9천 명, -0.4%)에서는 감소함.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증가 추세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07년 하반기 이후 건설업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산업	22,841 (1.2)	23,698 (1.2)	23,610 (1.3)	23,622 (1.3)	23,582 (1.2)	23,051 (0.9)	23,871 (0.7)	23,752 (0.6)	23,617 (0.7)	23,734 (0.5)
농림어업	1,450 (-2.8)	1,900 (-2.7)	1,866 (-3.7)	1,865 (-3.3)	1,690 (-3.8)	1,388 (-4.3)	1,848 (-2.7)	1,831 (-1.8)	1,830 (-1.9)	1,840 (-1.4)
제조업	4,138 (-1.2)	4,126 (-1.3)	4,093 (-1.2)	4,101 (-0.8)	4,120 (-0.9)	4,114 (-0.6)	4,101 (-0.6)	4,055 (-0.9)	4,020 (-0.8)	4,047 (-1.3)
건설업	1,772 (2.7)	1,934 (1.6)	1,843 (-0.3)	1,851 (-0.4)	1,853 (-0.5)	1,754 (-1.0)	1,896 (-2.0)	1,809 (-1.8)	1,795 (-1.5)	1,804 (-2.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43 (-1.0)	5,715 (-1.0)	5,722 (-0.2)	5,685 (-0.5)	5,723 (-0.3)	5,707 (-0.6)	5,673 (-0.7)	5,671 (-0.9)	5,649 (-0.9)	5,626 (-1.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357 (4.3)	7,606 (4.8)	7,674 (5.2)	7,704 (5.0)	7,762 (5.0)	7,684 (4.4)	7,924 (4.2)	7,976 (3.9)	7,917 (4.0)	8,010 (4.0)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363 (2.8)	2,400 (3.3)	2,396 (2.5)	2,398 (2.5)	2,415 (1.8)	2,385 (0.9)	2,410 (0.4)	2,387 (-0.4)	2,383 (-0.3)	2,385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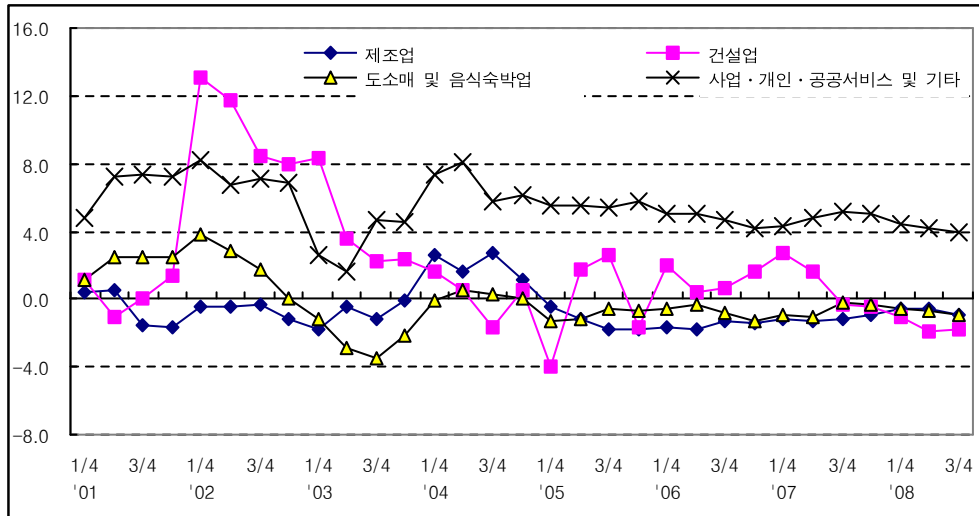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 『2008년 9월 고용동향』, 2008. 10.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의 취업자 증가 지속

- 2008년 3/4분기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52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6천 명(-0.9%)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22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08천 명(1.3%)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101천 명으로 348천 명(4.0%)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050천 명으로 83천 명(-1.6%) 일용근로자는 2,079천 명으로 56천 명(-2.5%)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임금근로자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6 참조).
- 2008년 3/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13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70천 명(29.5%)이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8,139천 명으로 1,088천 명(-5.7%)이 감소함.
 - 조사대상기간[9.14(일)~9.20(토)] 중 추석연휴[9.13(토)~9.15(월)] 포함과 짧은 연휴기간으로 휴무·휴가연장 및 학교 휴교 등으로 인해 취업시간 대폭 감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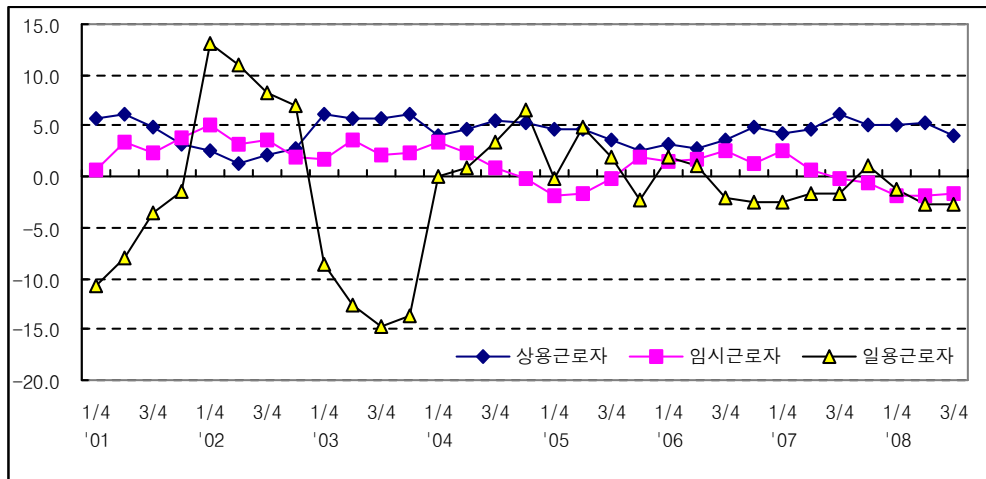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체	22,841 (1.2)	23,698 (1.2)	23,610 (1.3)	23,622 (1.3)	23,582 (1.2)	23,051 (0.9)	23,871 (0.7)	23,752 (0.6)	23,617 (0.7)	23,734 (0.5)
비임금근로자	7,199 (-2.2)	7,637 (-1.1)	7,589 (-2.2)	7,567 (-2.2)	7,426 (-1.8)	7,097 (-1.4)	7,521 (-1.5)	7,522 (-0.9)	7,514 (-0.8)	7,513 (-0.7)
자영업주	5,895 (-1.9)	6,139 (-0.9)	6,128 (-1.3)	6,116 (-1.3)	6,035 (-1.4)	5,816 (-1.3)	6,073 (-1.1)	6,052 (-1.2)	6,035 (-1.5)	6,060 (-0.9)
무급가족종사자	1,304 (-3.2)	1,498 (-1.8)	1,460 (-5.9)	1,451 (-5.9)	1,391 (-3.4)	1,281 (-1.8)	1,449 (-3.3)	1,470 (0.7)	1,478 (1.9)	1,454 (0.2)
임금근로자	15,642 (2.8)	16,061 (2.4)	16,022 (3.0)	16,056 (3.0)	16,156 (2.6)	15,954 (2.0)	16,350 (1.8)	16,229 (1.3)	16,104 (1.4)	16,221 (1.0)
상용근로자	8,404 (4.3)	8,533 (4.6)	8,753 (6.2)	8,823 (5.7)	8,790 (5.1)	8,839 (5.2)	8,981 (5.2)	9,101 (4.0)	9,107 (3.9)	9,142 (3.6)
임시근로자	5,163 (2.5)	5,237 (0.7)	5,133 (-0.3)	5,100 (0.0)	5,156 (-0.6)	5,064 (-1.9)	5,141 (-1.8)	5,050 (-1.6)	4,970 (-1.5)	5,015 (-1.7)
일용근로자	2,075 (-2.4)	2,291 (-1.7)	2,135 (-1.5)	2,132 (-0.5)	2,211 (1.0)	2,051 (-1.2)	2,227 (-2.8)	2,079 (-2.6)	2,027 (-2.3)	2,064 (-3.2)
36시간 미만	3,014 (6.4)	2,564 (1.7)	3,962 (23.7)	2,642 (4.9)	2,549 (-5.1)	2,770 (-8.1)	3,055 (19.1)	5,132 (29.5)	5,068 (2.8)	7,569 (186.4)
36시간 이상	19,384 (0.2)	20,906 (1.1)	19,227 (-2.4)	20,743 (0.8)	20,806 (2.2)	19,888 (2.6)	20,546 (-1.7)	18,139 (-5.7)	17,784 (-0.3)	15,819 (-23.7)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08년 9월 고용동향』, 2008. 10.

〈그림 6〉 임금근로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30대, 40대, 50대, 고졸 이하 실업자 증가

- 2008년 3/4분기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30대, 40대, 50대에서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소폭 감소함.
 - 2008년 3/4분기 중 연령별계층별 실업률은 15~29세, 60대 이상에서 하락하였고,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상승함.
 - 교육정도별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중졸(8천 명), 고졸(3천 명)에서 증가한 반면, 대졸 이상(-15천 명)에서는 감소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2.1%, 0.2%p), 고졸(3.8%, 0.1%p)에서 증가한 반면, 대졸 이상(2.9%, -0.3%p)에서는 감소함.
- 2008년 3/4분기 중 전체 실업자 752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3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천 명 감소한 반면,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713천 명으로 1천 명 증가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체	851(3.6)	791(3.2)		756(3.1)	719(3.0)	734(3.0)	801(3.4)		
15~29세	346(7.6)	330(7.3)	322(7.1)	308(7.0)	312(7.0)	328(7.3)	327(7.4)	303(6.9)	312(7.1)	263(6.1)
30~39세	216(3.5)	203(3.3)	189(3.0)	182(2.9)	183(2.9)	193(3.1)	187(3.0)	193(3.1)	194(3.2)	202(3.3)
40~49세	151(2.3)	130(1.9)	132(2.0)	126(1.9)	126(1.9)	160(2.4)	138(2.1)	138(2.1)	144(2.1)	135(2.0)
50~59세	96(2.4)	95(2.2)	80(1.9)	73(1.7)	78(1.8)	83(2.0)	82(1.8)	91(2.1)	89(2.0)	95(2.1)
60세 이상	42(1.7)	33(1.2)	34(1.2)	31(1.1)	35(1.3)	38(1.6)	33(1.2)	27(1.0)	24(0.9)	28(1.0)
중졸 이하	150(2.8)	112(1.9)	105(1.9)	97(1.7)	109(2.0)	128(2.5)	120(2.2)	113(2.1)	114(2.1)	106(1.9)
고졸	426(4.2)	379(3.7)	378(3.7)	347(3.4)	372(3.7)	402(4.0)	368(3.7)	381(3.8)	377(3.8)	359(3.6)
대졸 이상	274(3.3)	300(3.5)	274(3.2)	275(3.2)	253(2.9)	271(3.1)	279(3.1)	258(2.9)	273(3.0)	257(2.9)
취업 무경험 실업자	40	40	44	32	40	44	49	39	36	28
취업 유경험 실업자	810	751	712	687	694	757	718	713	728	694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8년 9월 고용동향』, 2008. 10.

(정성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임금, 근로시간, 가계수지 동향

- ◆ 2008년 2/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전년동기대비 소득·소비 증가
- 2008년 2/4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로는 5.1% 증가하였음(전기대비로는 4.8% 감소).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6.1%), 사업소득(1.7%), 이전소득(8.7%)은 증가한 반면, 재산소득은 0.4% 감소하였음.
 - 전국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3%로 1/4분기에 비해 증가율 둔화
 - 소비지출의 경우는 교육비, 주거비, 식료품 소비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음(실질로는 0.2% 감소).
 - 전국가구의 가처분소득(소득에서 비소비지출 차감액)에서 소비지출하고 남은 흑자액이 7.7% 증가하고, 이에 따라 평균 소비성향은 전년동기보다 0.5%p 낮은 77.5%를 기록함.
-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하였으며, 실질로도 3.5% 증가하였음.
 - 2008년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은 이전소득(20.9%)의 증가가 두드러져 전년동월대비 7.7% 증가하였으며, 비경상소득은 2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지출은 전년동분기대비 8.7% 증가하여 1/4분기에 이어 8%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실질로는 3.7%의 증가율을 기록함.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하였음.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은 7.1% 증가함에 따라 평균 소비성향도 전년동기보다 0.2%p 높은 74.3%를 기록함.

〈표 6〉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원,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소득	3,225 (5.1)	3,251 (6.2)	3,092 (3.5)	3,282 (7.4)	3,274 (3.3)	3,415 (5.0)	3,250 (5.1)	
소득(실질)	3,077 (2.5)	3,141 (4.0)	2,956 (1.0)	3,117 (4.9)	3,088 (0.0)	3,180 (1.2)	2,965 (0.3)	
경상소득	3,032 (4.9)	2,996 (6.1)	2,940 (3.6)	3,113 (6.4)	3,078 (3.5)	3,150 (5.1)	3,091 (5.1)	
근로소득	2,039 (6.3)	2,006 (7.9)	1,956 (4.3)	2,119 (7.8)	2,074 (5.3)	2,150 (7.2)	2,074 (6.1)	
기타소득	993 (2.1)	990 (2.5)	984 (2.3)	994 (3.6)	1,003 (0.0)	1,000 (1.0)	1,016 (3.3)	
비경상소득	193 (8.2)	255 (7.4)	153 (0.8)	169 (29.4)	196 (0.6)	265 (3.9)	159 (4.3)	
소비	2,212 (4.3)	2,298 (4.2)	2,102 (3.6)	2,228 (8.0)	2,218 (1.6)	2,419 (5.3)	2,198 (4.6)	
소비(실질)	2,110 (1.7)	2,220 (2.1)	2,010 (1.2)	2,116 (5.5)	2,092 (-1.7)	2,252 (1.5)	2,006 (-0.2)	
비소비 지출	419 (5.7)	406 (7.3)	398 (5.8)	457 (5.2)	417 (4.9)	458 (12.6)	414 (4.1)	
가처분소득	2,806 (5.0)	2,845 (6.0)	2,695 (3.1)	2,826 (7.8)	2,857 (3.1)	2,957 (4.0)	2,836 (5.3)	
흑자액	594 (7.6)	54 (14.4)	592 (1.4)	597 (6.9)	639 (8.7)	538 (-1.6)	638 (7.7)	
평균 소비성향	78.8	80.8	78.0	78.9	77.6	81.8	77.5	

- 주: 1) 실질소득(소비)=(소득/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기타소득=사업+재산+이전소득
- 2)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 4)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 5)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자료: 통계청, 『2008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200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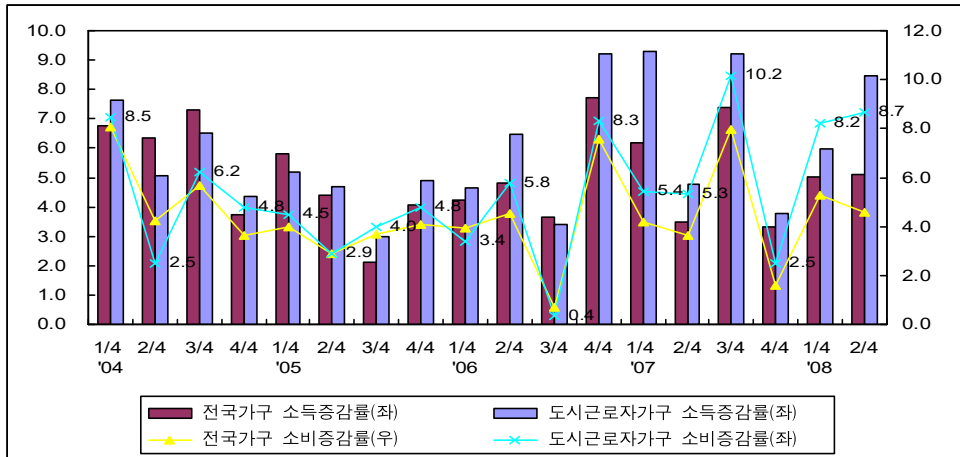
〈표 7〉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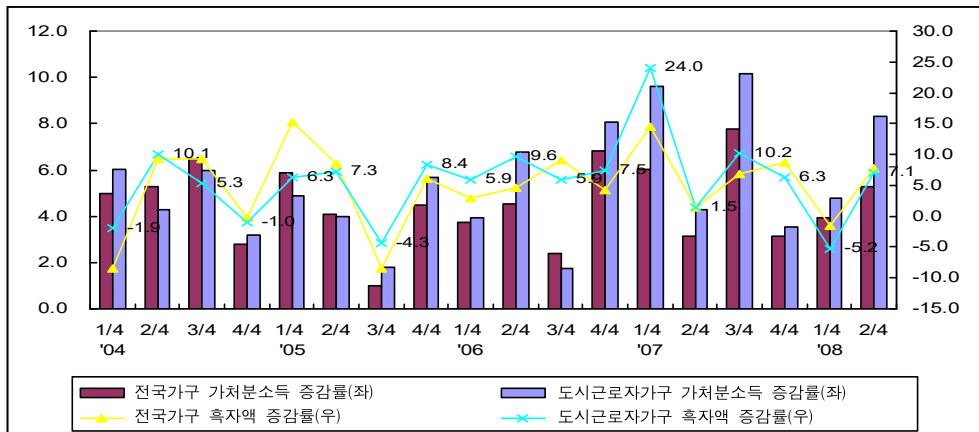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소득	3,675 (6.7)	3,764 (9.3)	3,468 (4.8)	3,738 (9.2)	3,731 (3.8)	3,990 (6.0)	3,762 (8.5)	
소득(실질)	3,507 (4.1)	3,637 (7.1)	3,316 (2.3)	3,550 (6.7)	3,520 (0.4)	3,715 (2.1)	3,433 (3.5)	
경상소득	3,488 (6.7)	3,496 (9.2)	3,336 (5.5)	3,587 (8.2)	3,534 (4.1)	3,725 (6.5)	3,592 (7.7)	
근로소득	3,176 (6.8)	3,187 (9.8)	3,041 (5.9)	3,265 (7.6)	3,209 (3.9)	3,420 (7.3)	3,267 (7.4)	
기타소득	313 (6.3)	309 (3.4)	295 (1.7)	322 (15.0)	325 (5.5)	305 (-1.3)	324 (10.2)	
비경상소득	187 (6.8)	268 (10.7)	133 (-11.6)	151 (37.8)	197 (-1.1)	265 (-1.2)	170 (28.4)	
소비	2,349 (5.8)	2,446 (5.4)	2,226 (5.3)	2,380 (10.2)	2,343 (2.5)	2,647 (8.2)	2,419 (8.7)	
소비(실질)	2,241 (3.2)	2,363 (3.3)	2,128 (2.8)	2,261 (7.7)	2,211 (-0.8)	2,465 (4.3)	2,207 (3.7)	
비소비지출	492 (5.9)	486 (7.4)	463 (7.9)	526 (3.5)	494 (5.4)	554 (13.9)	508 (9.8)	
가처분소득	3,183 (6.9)	3,278 (9.6)	3,005 (4.3)	3,212 (10.2)	3,237 (3.5)	3,436 (4.8)	3,254 (8.3)	
흑자액	834 (10.0)	832 (24.0)	779 (1.5)	832 (10.2)	894 (6.3)	789 (-5.2)	835 (7.1)	
평균 소비성향	73.8	74.6	74.1	74.1	72.4	77.0	74.3	

주: <표 6>과 동일.

[그림 7] 전국가구 및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소비 증감률



[그림 8] 전국가구 및 도시근로자가구의 가처분소득·흑자액 증감률



○ 2008년 2/4분기의 소득5분위별 가계수지를 살펴보면, 전국가구의 1분위 평균소득은 891천 원으로 5분위 가구 평균소득(6,649천 원)의 13.4%에 해당됨.

- 도시근로자가구는 1분위 평균소득은 5분위의 19.6%에 해당하는 1,420천 원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하위분위로 갈수록 소득대비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은 반면, 재산·이전소득 등의 기타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국가구와 도시근로자가구 모두 1분위의 소비지출 규모가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전국가구는 138.8%, 도시근로자가구는 101.7%로 5분위의 평균 소비성향과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표 8〉 전국가구의 소득5분위별 가계수지(2008년 2/4분기)

(단위: 천 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	891 (13.4)	1,992 (30.0)	2,859 (43.0)	3,858 (58.0)	6,649 (100.0)
경상소득	843 (13.8)	1,935 (31.6)	2,786 (45.5)	3,771 (61.6)	6,118 (100.0)
근로소득	357 (7.8)	1,093 (24.0)	1,732 (38.0)	2,629 (57.6)	4,561 (100.0)
기타소득	485 (31.2)	843 (54.1)	1,054 (67.7)	1,142 (73.4)	1,557 (100.0)
비경상소득	49 (9.2)	57 (10.7)	73 (13.7)	86 (16.2)	531 (100.0)
가처분소득	793 (13.9)	1,776 (31.1)	2,520 (44.1)	3,381 (59.2)	5,711 (100.0)
소비	1,101 (30.3)	1,630 (44.9)	2,079 (57.3)	2,552 (70.3)	3,628 (100.0)
흑자액	-308 (-14.8)	146 (7.0)	441 (21.2)	829 (39.8)	2,083 (100.0)
흑자율	-38.8	8.2	17.5	24.5	36.5
평균 소비성향	138.8	91.8	82.5	75.5	63.5

주: 1) 소득5분위별 소득(소비)은 가구원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 따라서 가구간 소득분배 상태와는 무관함.
 2) ()안은 5분위 소득(소비) 대비 비중(5분위 소득=100.0)

〈표 9〉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별 가계수지(2008년 2/4분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	1,420 (19.6)	2,467 (34.0)	3,320 (45.8)	4,348 (59.9)	7,253 (100.0)
경상소득	1,384 (20.8)	2,412 (36.3)	3,253 (48.9)	4,257 (64.0)	6,650 (100.0)
근로소득	1,210 (20.2)	2,186 (36.5)	3,003 (50.1)	3,939 (65.7)	5,997 (100.0)
기타소득	174 (26.7)	226 (34.7)	250 (38.3)	318 (48.8)	653 (100.0)
비경상소득	36 (5.9)	55 (9.0)	68 (11.2)	90 (15.0)	603 (100.0)
가처분소득	1,285 (20.9)	2,185 (35.6)	2,903 (47.3)	3,753 (61.1)	6,139 (100.0)
소비	1,308 (34.2)	1,866 (48.8)	2,292 (59.9)	2,800 (73.2)	3,826 (100.0)
흑자액	-22 (-1.0)	318 (13.8)	611 (26.4)	953 (41.2)	2,313 (100.0)
흑자율	-1.7	14.6	21.0	25.4	37.7
평균 소비성향	101.7	85.4	79.0	74.6	62.3

주: <표 8>과 동일.

(반정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근로손실일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세 지속

- 2008년 10월 29일 현재 노사분규 동향을 살펴보면,
 - － 분규 발생건수는 103건으로 전년동기(97건)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근로손실일수는 772,511일로 전년동기(455,430일) 대비 69.6% 증가함.

〈표 10〉 노사분규 주요 지표 동향

(단위 : 개소, 일)

	2007. 10. 29	2008. 10. 29
노사분규 발생건수	97	103
근로손실일수	455,430	772,511

주 :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자료 : 노동부.

◆ (가칭)공공운수통합산별노조 출범 난항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산하 운수노조와 공공서비스노조가 (가칭)공공운수통합산별노조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만 조직합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10월 27일 공공운수연맹에 따르면, 공공서비스노조와 운수노조가 대의원들에게 양 조직 통합여부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공공서비스노조는 가결되었지만 운수노조는 대의원대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힘.
 - － 공공서비스노조는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자투표를 통해 대의원들의 조직합병 찬반의사를 확인했는데, 그 결과 재적대의원 195명 중 147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 131명(89.1%)이 찬성해 가결됨.
 - － 이에 반해 운수노조는 10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조직합병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대의원들의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전개됨. 대회 논의과정에서 선(先) 통합준비위원회 출범, 후(後) 조직합병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이 제시되기도 했

으나 부결되었고, 결국 원안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유회됨.

- 이에 따라 내년 4월 30일 창립대의원대회를 거쳐 5월 1일 통합산별노조를 출범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임.
 - 공공운수연맹은 10월 29일 통합산별노조 준비위원회 발족을 위한 11월 8일 대의원대회를 연기한다는 방침을 정하였고,
 - 또 향후 연맹 및 노조임원 연석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논의, 오는 12월 즈음 대의원대회를 열어 통합산별노조 추진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공공운수연맹은 올해 2월 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2009년 5월 1일을 목표로 하는 (가칭)공공운수노조 건설 및 이행경로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양 노조는 의결단위를 통해 합병을 결의하고 준비위원 선출을 완료한 뒤 11월 8일까지 (가칭)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 논의 본격화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0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힘.
 - 지난 2006년 9월 11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해당 규정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그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하지만 위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공익위원 재위촉이 지연되고 존속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회의체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이에 따라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하기에 이르렀음.
 -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노동부차관,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총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무위원회를 열고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문제를 논의할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힌 바 있음.
-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 노사정 대표위원 각 3명,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최중태 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됨.
 - 동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이며,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됨.

- 이에 따라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는 11월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노조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노사간 입장 차이가 현저한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의 위원회 논의과정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임.
- 한편 최근 노동부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2009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것임을 공표함.
 - 정부가 지난 10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5대 국정지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으며,
 - 노동부는 10월 27일 ‘노동부 국정과제(14개) 개요’를 발표, 국정과제별 세부 실천과제를 57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시한 및 주관기관을 명시하고 있음.
 -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시한을 내년 상반기로 정하고 있음.

◆ 정부,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 정부는 지난 8월 11일과 8월 26일 79개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추진계획(1~2차)을 발표한 데 이어 10월 10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30개 기관에 대한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함.
 - 정부의 이번 3차 계획은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개편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을 중심으로 했던 지난 1~2차 선진화 추진계획(1~2차)과는 다소 상이한 특징을 보임.
- 정부의 이번 3차 계획 발표에 따라 전체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108개 기관에 대한 선진화 계획이 마무리됨.
 - 108개 기관에 대한 선진화 계획을 세분해 보면, 민영화(38개), 경쟁도입(2개), 통합(38→17개), 폐지(5개), 기능조정(20개), 그리고 경영효율화(8개) 등으로 요약됨.
 -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차 41개, 2차 40개, 그리고 3차 30개 등 총 111개 기관에 대한 선진화 계획을 담고 있지만, 3개 기관이 중복되어 최종 대상기관은 108개 기관인 것으로 집계됨. 중복기관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근로복지공단(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한국전력(2차 기능조정, 3차 경영효율화) 등임.

〈표 11〉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추진방향	해당기관
민영화 및 지분매각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화(7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중합에너지(주), 대한주택보증(주), 88관광개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지개발(주),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 지분 일부매각(3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경쟁도입(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통합 및 폐지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7→3개) 코레일전기(주)·코레일트랙(주)·(주)코레일엔지니어링·(주)코레일개발·코레일네트웍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연말에 결정(2→1개) ■ 폐지(2개)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기능조정(1개)	한국가스기술공사
경영효율화(8개)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5개 자회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마련」(2008.10.10).

-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과는 별도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연말까지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한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 아울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출자(재출자)기관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하여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함.

- 이러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해당기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민주노총은 10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분·자회사 매각, 경영 효율화 등의 선진화 방안은 외형적으로는 민영화를 유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공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한 민주적 진행이 중요하다고 촉구함.
 - 전국전력노조 또한 10월 10일 성명을 내고 독립사업부제 재편·설비유지업무 민간위탁 확대 등의 주요 내용이 한국전력의 설립목적과 전력산업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훼손한다며 선진화 방안이 충분한 경영진단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함.

- 노동계는 11월에도 정부의 공기업 구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

- 민주노총이 10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연대파업을 발표하는가 하면, 서울 지하철노조·한국공항공사노조도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이미 가결한 상태임. 또한 철도노조, 공공서비스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부산지하철노조, 발전노조 역시 11월 초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이처럼 노동계가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밝힌 상태에서 향후 선진화 논의 및 공공 부문 노사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지난 9월 24일 제출한 공무원연금 제도 정책건의안을 토대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연금보수산정 기초가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 소득 개념인 기준보수월액으로 점진적으로 변경되며(기준보수 기준 현행 5.525% ⇒ 2012년 7%), 보수산정 재직기간이 종전의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됨.
- 연금급여의 지급개시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신규자부터 65세로 상향조정되며, 연금급여 조정은 공무원보수 변동률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함(제도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10년간 단계적 조정).
- 한편 공무원노조전임 휴직기간을 퇴직수당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교원노조 전임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조치임.

○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무원 노동단체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공무원노총·전국교직원노조·전국민주공무원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구성된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9월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간에 비해 낮은 퇴직금과 보수, 겸직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 공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전국공무원노조 또한 10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방만한 기금운용으로 16조 원이나 손실을 내고도 이에 대해 함구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연금기금이 고갈되었다고 정부가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함. 특히 세대간 부양시스템인 부가방식으로 연금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신규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9년도부터 입직하는 신규공무원과 재직공무원과의 차별적 연금수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표 12〉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요약

	현행	개선(안)
연금산정 기준보수	■ 보수월액(기준보수의 65%)	■ 기준보수(소득상한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급여산식	■ 50%+[재직기간-20]×2% ※33년 재직상한 : 76%	■ 재직기간×1.9%
비용부담률	■ 보수월액 기준 8.5% (기준보수 : 5.525%)	■ 기준보수 기준 : 2009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
급여산정기초	■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	■ 전 기간 평균보수(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지급개시연령	■ 60세(1996년 이후 임용자) ■ 50→60세(2000년 말 현재 20년 미만 재직자)	■ 65세(신규자부터 적용)
연금액 조정기준	■ 소비자물가 변동률+정책조정 ※ 보수·물가간 ±2%p내 조정	■ 단계적 소비자물가 변동률 적용 ※ 2009~2013년 : 보수물가간 ±3%p내 조정 ※ 2014~2018년 : 보수물가간 ±4%p내 조정 ※ 2019~2023년 : 소비자물가변동률
유족연금 지급률	■ 퇴직연금×70%	■ 퇴직연금액×60%(2009년 신규자부터 적용)
기타	■ 퇴직수당 산정시 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기간 중 2분의 1만 재직기간에 산입	■ 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포함 ■ 연금 수급권자 급여 중 일정금액 생계비 압류 금지 ■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금고 이상형 받을시 퇴직급여 제한 대상 제외

주 : 1)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기준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퇴직급여(일시금 및 퇴직수당 등) 및 재해·부조급여 등의 지급률을 기준소득에 맞추어 조정(현재 급여수준 유지).
2)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자료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2008. 9. 25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2008. 10. 6.)

- 한편 지난 9월 30일 기획재정부의 2009년 예산안에서 2009년 공무원 정원 및 보수가 현 수준에서 동결된 것 또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맞물리는 현 시점에서 향후 대정부교섭의 난항이 전망되고 있음.

◆ 내년도 노동정책 예산안 11조 437억 원 편성

- 노동부는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금년보다 3.9%(4,139억 원) 증가한 11조 437억 원으로 편성
 - 예산(회계)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9,464억 원이며, 기금은 전년대비 3.9% 증가

한 10조 974억 원 수준

- 새정부 국정과제인 청년고용촉진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노사협력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노동정책 전반에서 민간 분야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역점
- 불요불급한 사업, 고용·직업훈련 분야 공공기관 운영비 등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사업운영 방식을 효율화하여 전체적인 증액 요인을 최소화함.

○ 노동부는 최근 고용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년층 고용촉진사업에 역점

-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의 일환으로 해외취업연수 사업을 2,300명에서 5,125명으로 확대(92→183억 원)
- 저학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1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신설(기존 YES사업을 대폭 보완, 확대 10→84억 원)
- 미취업청년 5천 명으로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실시하면서 인턴기간 동안 임금의 50% 지원(191억 원), 인턴 종료 후 정식 채용시 6개월간 임금 50% 추가 지원(96억 원)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 확대

- 평소 훈련수강이 힘든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3만 명을 대상으로 주말·야간 단기직무과정인 “JUMP”사업 시행(신설, 110억 원)
-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3,700명을 대상으로 생계 걱정없이 능력개발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제도 도입(신설, 99억 원)
-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훈련비용과 함께 훈련으로 인한 빈 일자리 대체고용 비용을 동시에 지원(신설, 52억 원)

○ 상생의 노사협력 확산을 위해 지역, 현장단위 협력 지원 강화

- 지역단위의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지원 대폭 강화 (6→50억 원),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노사자율 협력사업 지원 확대 (35→50억 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금직무체계 개선사업 확대(8→10억 원) 등
- 한편 사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 노사의 자율성을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며 행정을 효율화하는 데 역점
- 종전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예: 고용지원센터, 산업인력공단 등) 중심의 정책 집행에서 탈피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과 성과를 높이고자 함. **KL**

(강병식 노사관계연구실 전문위원)